

추석

한국의 추석은 음력 8월15일로 한가위라고도 한다. 이 날은 설과 단오와 함께 한국 3대 명절의 하나이다. 추석이 되면 한더위는 사라지고 시원한 가을이 다가올 때이다. 이 무렵에는 논과 밭에 곡물이 풍부하다. 이 곡물을 거두어서 이것으로 술을 빚고 밥을 짓고 떡을 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추석이다.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끝내고서는 모든 가족이 모여 앉아서 만든 음식을 함께 먹는다. 그러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에는 우선 송편이 있다. 이것은 쌀가루를 따뜻한 물에 풀어서 팔을 넣어 소나무잎을 깔고 찐 떡이다. 그리고 쇠가리에 여러가지 양념을 해서 찐 음식, 송이산적등이 있다.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은 매우 좋아하지만 이것을 만드는 어머니들에게는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추석이 하는 놀이도 여러가지 있다. 가마와기를 만들어서 적군의 가마를 부수어기를 빼앗는 가마싸움이 있다. 또, 소를 서로 대면시켜 싸움을 하도록 하는 소싸움이 있다. 그리고 여자들이 둥글게 원을 만들어 춤추고, 그 춤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같은 놀이는 거의 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그 의의는 그대로이다. 추석은 그 해의 풍년에 대해서 조상에게 감사하고 동시에 다음해에도 풍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의미가 있다. 농업이 사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했다. 그 의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현재도 추석은 한국의 큰 명절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